

28 營造法式 영조법식

1932년 / 이명중(李明仲) / 94면 / 04.20-01 이13영 1932

『營造法式(영조법식)』은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북송 말기에 이명중(李明仲)이 편찬한 중국 고대 건축기법과 원리를 집대성한 중국 건축의 바이블인 동시에 고려와 조선조 건축의 핸드북(Hand Book) 역할을 했다. 필자는 국토연구원장 재임 당시 국토개발과 관련된 고전 번역 계획을 세워 『周禮考工記(주례고공기)』와 『天工開物(천공개물)』을 번역했고 그에 이어 세 번째로 번역한 대상이 이 『營造法式』이었다.



『營造法式』이란 책을 구하기 위해 국내 도서관에 조회해 보았으나 구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마침 대만대학에 교환교수로 가 있는 경희대학의 조동규(趙東奎) 교수에게 연락했더니 복사본을 보내 왔다. 번역을 하기 위해 우선 명동에 있는 화교학교 국문학박사(중국어)에게 보였더니 서문을 딱 보고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했다. 지금 그들이 쓰는 백화문(百華文)이 아니고 고문이기 때문이라 했다.

그래서 궁리 끝에 한학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정신문화연구원 및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을 오진모(吳鎭模) 전산·자료실장이 직접 들고 다녔다. 그러나 다들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런데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이해철(李海哲) 선생이 “이것을 누가 번역하라 하느냐?” 하고 물었다. “우리 원장의 강력한 의지다”라고 하자, “고문이라 번역이 어려운데,

정 그렇다면 내가 대만에 가서 고문을 해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서 공부해 가면서 해볼 테니 시간과 자료구입비를 달라”고 제의했다. 규정을 초월한 원고료와 자료구입비로 이해철 선생은 대만에 가서 수십권의 자료를 구입해 왔고 2년의 고심 끝에 『營造法式』 36권 중 4권까지의 번역을 끝내 1984년에 『營造法式 一』을 출간했다. 이어 1989년에는 10권까지의 번역을 마쳐 『營造法式 二』를 찍어내었다. 그후는 현재까지 번역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鈔貽留近古紀載亦鮮弗門講求此學者若柳宗元親
 見都料匠畫官於堵盈尺而曲盡其制計其毫釐而構
 大厦作梓人傳而不着匠人姓字歐陽脩沈括見都料
 匠管皓木經而數其用心之精此則較可徵信者也明
 仲身任將作未敘脩者過下北宋全盛土木繁興之際
 書稱工作相傳經久可用又復援據經史研精詰訓故
 其完善精審足以繼往開來故於學殖朽落無常絕述
 船艚既嚴用敢標準委我以論讀者列朝管繕皆取辦
 於賦役故營造之良窳恆視國家之財力以爲衡宋代
 功限料例當與近官價有別按汴故宮記東京良嶽
 記諸書所載竭天下之富以成偉觀靖康劫後輸來幽

1925년(중화민국 16년)의 기록을 보면 진(秦)나라가 모든 책들을 불태운 후로는 만리장성이나 아방궁, 서경과 동도의 천문만호(千門萬戶)의 도시건설, 그리고 낙양의 가람(사찰)과 거대한 운하 등이 한갓 시인의 붓끝에서만 크고 화려함을 놀랍게 전해왔을 뿐 그 건설의 기법이나 형상을 전해 온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는데 다행히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명중(이계, 李誠)의 기록이 있어 큰 다행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발간되자 감사의 뜻을 전해 온 사람은 문화재관리위원이신 신영훈(申榮勳) 선생뿐이었다.